



“야구야 반갑다” 1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5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시범경기를 찾은 야구팬들이 응원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주말 2경기 챔피언스필드에는 2만9000여 팬들이 발걸음을 했다. <관련기사 20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3 달뜨기 03:15
해질녘 18:40 달지기 14:03

봄기운 '물씬'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5/22, 목포 맑음 4/18, 여수 맑음 8/17, 나주 맑음 2/22, 완도 맑음 6/18, 구례 맑음 2/21, 강진 맑음 3/20, 해남 맑음 3/21, 장성 맑음 3/21, 보성 맑음 2/19, 순천 맑음 7/20, 영광 맑음 2/21, 진도 맑음 3/20, 전주 맑음 2/20, 군산 맑음 1/18, 남원 맑음 0/20, 옥산도 맑음 6/14

◇바다 날씨, ◇생활지수, ◇물때, ◇주간 날씨

광주·전남 회수안된 총기 125정... 시민은 '불안'

3년새 허가 취소 불구 안돌아와... 도난·분실 처리 성능 개변조 범죄 악용 우려 속 행방 파악도 안돼

광주·전남 경찰이 관리하는 전체 총기 중 총기소지 허가가 취소됐는데도 회수되지 않은 총기가 125정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미회수된 총기는 도난·분실된 것으로, 경찰의 총기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미회수된 총기가 성능향상을 위한 개변조를 통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총기 소유주가 자신의 총기를 고의로 분실신고를 내고 성능을 개량한 뒤 돈을 받고 타인에게 총기를 파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난·분실된 총기 회수대책 등 총기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이 도난·분실된 총기가 불법 개변조된 뒤 시중에 버젓이 불법 유통되는데도 경찰은 인력난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병상 수 태부족... 응급실은 포화상태

중증환자 평균 6시간 기다려야 시간은 평균 6.3시간이었다. 중증응급환자는 사망률이 95%를 넘는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다. 중증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이 제일 긴 병원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서울보훈병원으로 중증응급환자가 무려 37.3시간이나 응급실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대병원(17.0시간), 서울대병원(16.5시간), 분당서울대병원(14.2시간), 양산부산대병원(14.1시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14.0시간), 조선대병원(13.6시간) 순으로 재실시간이 길었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경찰, 14년만에 재수사 착수

검찰 무혐의 처분 사건 시효 만료 앞두고 주목 의자로 목포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무기수 김모(38·2001년 당시 24세)씨를 지목, 재수사를 벌이기도 했지만 끝내 불기소 처분했다. 박양 사건과 관련 보관중인 유전자와 김씨 유전자 일치한다는 대검 유전자 감식 결과를 토대로 한 재수사였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수 나주경찰서 수사과장은 “새로 부임해 미제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 공소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가장 오래된 장기 미해결 사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에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을 경찰이 다시 검토한다는 점에서 미묘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여기에 공교롭게도 전·현직 형사 5명과 범죄학자, 변호사 등이 결성한 ‘미제사건 포럼’도 최근 나주 드들강 살인 수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손영철기자 yson@

200억 한정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골목상권 정책자금대출 대출출시!! 연이율 1.25~1.4% 대출기간 3년/5년 최고 2천만원